

## 미야마 제 1 포대

미야마 제 1 포대는 1890 년대 가다 기탄 해협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한 5 개 포대 중 하나입니다. 해협 간 전체 폭이 11km 인 기탄 해협은 일본 제 2 의 도시이자 주요 공업지대인 오사카와 오사카 만, 그리고 주요 항구인 고베항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포대는 전체가 3 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구역에는 원형 포좌가 각 2 개씩, 총 6 개의 대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구역들 사이에는 2 개의 지하 탄약고가 있습니다. 포대와 포대 사이는 탄약고 뒤의 좁은 터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대는 방어 목적으로 흥벽 뒤쪽 언덕에 설치되었습니다. 가동되던 당시에는 주위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흥벽 정면에 있는 관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하는 전성관(伝声管)이 이곳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대포는 포탄을 위로 발사하면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단포신포의 28cm 곡사포입니다. 포탄이 최대한 높은 고도로 상승한 후 급격하게 낙하하여 파괴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언덕 위 고지대에 포대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곡사포는 하나도 남지 않았지만 오키노시마 섬 근처 노나우라 교각에 곡사포탄 1 발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메이지 시대(1868-1912)에 다른 나라의 잠재적인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건설되었지만, 실전에서 포격한 실적 없이 1914 년에 해체되었습니다.